

핸드볼부 황금기로 이끈 주장 “국가대표 · 해외 진출도 꿈꾼다”



나 선수는 “어려운 걸 알지만, 국가대표에 뽑혀 실력을 보여주고 해외까지 나가는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나 선수 제공)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핸드볼부 주장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매 호마다 체육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 아니라,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학교를 다시 대학 핸드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장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났다.

과거 황금기 재현의 주역 어느덧 4학년 마지막 학기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학교 핸드볼부는 지난 1980~90년대, 대학 무대를 호령했었다.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다시 5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하며 트로피를 독차지했다. 팀의 주장이자 센터백인 나 선수는 지난 5월 대학핸드볼통합리그에서 득점왕을 수상하며 우승에 공을 세웠다. 나 선수는 “입학 연도에는 3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팀이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계속 우승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그는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이제는 캠퍼스가 집보다 더 집 같다”고 말했다. 새내기 땀 어려웠던 감독님과도 호흡이 잘 맞게 됐다고 한다. 나 선수는 “예전엔 경기 중 지시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3년 이상을 보내면서 팀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승을 독차지하다 보니, 다른 대학 선수들에게도 가장 꺾고 싶은 상대가 됐다. 나 선수는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를 이기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대회 준우승 패인은 ‘방심’ 그만큼 전국체전 의지 높아

명실상부 대학 최강팀이었지만, 얼마 전 열린 대학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원광대에 패했다. 대회 첫 경기였던 강원대와의 예선전은 34-35로 패배했다. 무패우승을 거듭했기에 이런 패배는 이번이었다. 나 선수는 “계속 우승을 했던 것이 방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기분 좋은 패배는 없지만, 때로는 패배라는 경험을 통해 승리할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선수들은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원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나 선수는 “훈련할 때 예전보다 선수들에게 강한 요구를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대회 첫 상대 한국체대는 지난

여러 대회에서 중요 길목마다 만났던 상대다. 나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실업팀을 이겨보자는 목표보다는, 첫 경기 상대 한국체대를 확실히 잡고 가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관문 10월 ‘H리그 드래프트’ “언젠가 해외 진출도 하고 싶다”

오는 10월에는 핸드볼 실업리그 ‘H리그’의 드래프트가 열린다.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이 실업구단에 입단하기 위한 관문이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나 선수도 드래프트에 참여한다. 나 선수는 “드래프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뽀뽀 쪽과 아닌 쪽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걸 봤다”며 “많이 긴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프로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시기지만 그는 큰 야망을 품고 있다. 나 선수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해외리그에도 진출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 등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는 “어려운 걸 알지만, 국가대표에 뽑혀 실력을 보여주고 해외까지 나가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을 마지막으로 우리학교와의 여정은 끝난다. 나 선수는 “최근 들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도 그의 발걸음은 훈련장을 향했다. 나 선수는 직전 대회 준우승과 대학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후회 없는 대회를 위해 매일 땀 흘리고 있다.

농구부 하반기 4연패 성균관 · 단국대전 연패 플레이오프 진출 빨간불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농구부가 지난 22일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 단국대전에서 56-62로 패배했다. 하반기 4연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농구부는 1쿼터에 22-8로 앞서 나갔지만, 2쿼터는 18-24로 밀렸다. 이어지는 3쿼터에선 6-15로 흐름을 뺏기며 단국대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남은 시간에서 재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열렸던 16일 성균관대전에서도 70-77로 패배했는데, 2쿼터 역전 이후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됐다.

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 대해 “전반전에는 좋은 수비에 이어 스틸로 연결되는 속공 득점으로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2쿼터부터 상대의 강한 수비에 공격력이 저하된 것이 패인이었다”고 말했다. 김현국 감독은 “패배의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며 “부상 선수들이 많아 정상적인 라인업 가동이 힘들었다는 점과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렸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단국대전은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 우 선수의 대학 마지막 홈경기였다. 그는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후회없이 하고 싶었다”며 “공격 부분에서 자신있게 플레이했던 점과 적극적인 수비 및 리바운드 가담으로 인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정규시즌 최종전인 동국대와의 원정경기가 남아있다.

승리한다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8위 안에 들기는 어려워졌다. 동국대(6위), 단국대(7위), 한양대(8위)가 남은 경기에서 모두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수는 상명대의 경기 결과에 달려 있다. 만약 현재 11위인 상명대가 남은 경기에서 동국대나 단국대 중 한 팀에게라도 승리한다면, 우리학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동국대나 단국대 역시 7승 9패로 우리학교, 한양대와 동률을 이루게 되며, 순위는 팀 간 득실 편차로 결정된다. 현재 우리학교(-3점)는 단국대(-7점), 한양대(-2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경우의 수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동국대전을 이기는 것이다. 우 선수는 “마지막 경기만큼은 꼭 승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수비 부분에서 보강할 점이 있다”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우 선수를 포함한 4학년 안세준(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 지승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2026 KBL국내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한다.

우 선수는 “4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니 정말 빠르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며 “대학에서 좋은 추억도 많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부가 U-리그 하반기 4연패를 기록했다.

(사진=김예찬 기자)